

수능중심 정시전형 확대 반대

전북교육청, 2022 대입전형 개편안 관련 성명... "학생부전형 비율 유지돼야"

전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수능중심의 정시전형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3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 수능위주 문제풀이식 교육을 되풀이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학교현장과 입시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 주장이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급기야 '수능중심의 정시전형 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전북교육청은 대입제도 개

편안이 아닌 개악안이 될 수능중심 정시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행 수준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국가 책임지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

도 개편안 마련 ▲수능중심 정시확대를 지양하고 현행 수준의 선발 비율 유지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여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종합전형 장점을 살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이다.

교육청은 "대입제도가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 학생의 입장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한 2018 대한민국 학생창의력대회 전북예선대회에서 전주 만성초 '창의랑 하이파이브' 팀이 금상을 수상하며 전국본선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전주 만성초, '창의랑 하이파이브'

학생창의력대회 전북본선서 발명진흥회장상

지난달 9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한 2018 대한민국 학생창의력대회 전북예선대회에서 전주 만성초(교장 박성배) 5학년 5명(오주원, 노민준, 김주하, 송솔기, 이소을 학생)으로 구성된 '창의랑 하이파이브' 팀이 금상을 수상하며 전국본선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창의랑 하이파이브' 팀은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교육부 등에서 다수 후원하는 2018 대한민국 학생창의력대회 전북본선대회(킨텍스,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에 참가해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거머쥐며 또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번 전국본선대회에서는 '리부팅'이라는 주제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100개 팀이 열린

경연을 벌였다. 전주 만성초, '창의랑 하이파이브' 팀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하여 그 누구도 생각 못한 반전 드라마를 펼쳐며 표현과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작과제에서도 탁월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지운 지도교사는 과학과 발명에 관심이 많은 5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발명동아리 '창의랑 하이파이브' 팀원들이 평일 방과 후 3회, 매 주말마다 모여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가 빛을 발하게 되었다면서 그 동인의 학생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큰 대회에서 학생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경연을 마쳐 무척 자랑스럽고 교사로서도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프라임사업단 3차년도 자체평가 심포지엄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프라임사업단 3차년도 자체평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최근 열린 행사는 김도중 총장과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프라임사업 자체평가위원, 프라임사업 참여 학과 학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김도중 총장의 특강과 함께 열렸다.

또한, 발표에 이어 참여자 간 분임토의를 통해 1,2차년도 주요성과를 토대로 3차년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 종료 후 성과 유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도중 총장은 "어려운 대학 여건 속에서 프라임사업과 같은 정부재정

지원사업은 대학 운영에 필수적"이라며, "사업 운영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프라임사업을 통해 대학의 변화를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구양규 교수는 "산업연계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프라임사업

의 주된 목적"이라며, "사업종료를 앞두고 우수기업 취업 등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대 프라임사업단은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외부 컨설팅 의견 반영을 통한 3차년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프라임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프라임사업단 3차년도 자체평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보충수업·야자 강제하는 학교 강력 제재"

김승환 교육감 "권고는 지난 8년으로 충분... 적발되면 징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방학중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반사례를 적발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동의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강제도 하지 말 것을 솔하게 강조했고, 지난 8년간 여유기간도 충분히 줬다. 더 이상 권

고로 끝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상을 잘 알 것이다. 이 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위반사례를 적발하겠다"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의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

학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수십, 수백명의 점심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교급식 종사원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 식단의 조리실 내 환기시설은 청결유지가 안되면 학생은 물론 조리종사원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4세 여아가 땀병 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담당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또는 공동체에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다. 그런데 극히 일부가 일탈 또는 잘못을 했다고 그때마다 대중요법식으로 감시체제를 계속 강화하게 되면 공동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기자

작가와 함께하는 한여름의 인문학 여행

도교육청, 중·고생 독서인문학캠프 차례로 열어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중학생, 고등학생 독서인문학 캠프를 차례로 개최한다. 올해로 3기를 맞는 중학생 인문학 캠프와 7기를 맞는 고등학생 인문학 캠프는 다른 독서 행사와 차별화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타 시도 교육청의 벤치마킹 사례로 지리 잡았다.

이번 캠프를 위해 전북교육청이 선정한 48개 중·고생 인문학 동아리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각각 4권의 지정 도서에 대한 독서 활동을 활발히 전

개해 왔다.

전북학생교육원에서 7월 23~24일, 7월 26일~27일 각각 1박 2일로 치러지는 이번 캠프는 그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비경쟁 독서토론을 지향한다. 4명 저자와의 대화·주제 강연·월드카페 식 토론·활동 결과 나눔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포스트토텐딩, 모둠별 창작활동 등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과 소통능력, 인문학적 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김재훈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